

“금강경은 최고의 성공학·제왕학”

‘마음만 먹으면 ... 된다(心想事成)’ 펴낸

우승택 삼성증권 종로타워지점장

“자기가 목표로 하는 대상을 여여(如如)하게 보아 그 진리를 알고 나면 재미와 집중력과 꾸준함이 생기고 결국 성공할 수밖에 없는 것이 금강경의 구도과정과 너무 흡사합니다.”

증권사 VIP 자산관리 지점장으로서 최근 ‘공(空)사상’의 기초인 금강경 해설을 통해 주식투자 등에서 성공하는 방법을 일러주는 책 <마음만 먹으면... 된다 심상사상(心想事成)>(장승)을 펴낸 우승택(43·사진) 삼성증권 Fn 아너스 종로타워지점장. 우 지점장은 지난 4년간 자산관리 업무를 하면서 만났던 사업가, 연예인, 자영업



자 등 400여명의 성공요인을 분석한 결과 금강경의 가르침과 일맥상통한다는 것을 발견했다고 말했다.

우 지점장은 사회적으로 성공한 재력가들은 금강경 가르침대로 이 세상에 존재하는 모든 것을 있는 그대로 보는(如理實見) ‘여여한’ 눈을 가진 경우가 많다고 분석했다. 이들은 주가지수 1000 등 장밋빛 전망을 내 놓는 경제전문가들의 숫자놀음에 흔들리지 않고 종합주가지수이건 종목이건 평소에도 시장 움직임을 면밀히 관찰하며 기회를 봐 오던 사람들이라는 것이다.

우 지점장은 “금강경에서 가르치는 해탈이라

주식투자 실패원인은 욕심·공포 때문 ‘머무는바 없이 그 마음 일으키라’ 주문

는 구도과정과 여러 고객들로부터 들은 성공 여정은 결코 다르지 않다”면서 “금강경은 최고의 ‘성공학’ ‘제왕학’ 교재”라고 주장했다.

우 지점장은 주식투자의 주요 실패 원인인 ‘욕심’과 ‘공포’에서 벗어나기 위한 방안으로 금강경 가운데 ‘마땅히 머무는 바 없이 그 마음을 일으키라(應無所住 而生其心)’에 주목한다. 그는 이 구절을 “사야 할 종목이라고 생각하면 주저없이 사라”는 말로 해석했다. ‘일체의 유휴범은 마치 꿈같고 들거품 같다’는 구절에는 ‘모두 장밋빛 전망을 내놓을 때가 오히려 위험하다’는 해설

을 붙였다. 무소유에 대한 해석도 자산관리자 답다. “남이 못 보는 길 먼저 보고 남이 못하던 것 먼저 해서 멋지게 성공하되, 그 성공과 부와 명예에도 집착하지 말라”는 뜻이란다.

우 지점장은 금강경을 공부하게 된 계기에 대해 “주식 전문가는 타자와 같아서 타율이 3할만 되도 잘한다는 소리를 듣지만 자산관리사(Wealth Manager)는 투수와 같아서 승률이 9할은 되어야 잘한다고 할 수 있다”며 “종합자산관리 전문점의 지점장을 맡게 된 4년 전부터 많은 고민을 해 오던 중 금강경을 다시 접하고 해답을 얻게 됐다”고 밝혔다.

금강경의 가르침을 경각부회식으로 지나치게 세속적인 성공과 결부시키는 것이 아닌가 하는 우려에 대해, 그는 “지금껏 가지고 있던 어리석은 마음을 항복받고 다른 사람을 위해 살겠다는 보시의 마음을 알게 된 후, 금강경의 깨달음과 복덕(福德)의 가르침을 혼자만 알기 아까워 유휴범을 냈다”고 고백했다.

우 지점장은 10년전 금강경을 처음 접하면서 매일 108배를 몇 번씩하고 <천수경>을 외우는 한편 틈틈이 ‘관세음보살’ 정공 10만독을 하는 등 수행을 쌓아왔다. “금강경을 독도해서 고객들을 부자로 만들어 주는 것이 소원”이라는 그는 이번 책을 통해 얻은 인세 전액을 안산시와 협의해 외국인노동자를 돕는 단체에 기부하고, 불교 장학재단과 가톨릭재단에도 도움을 줄 예정이다.

김재경 기자 jgkim@buddhapia.com



‘하늘로 오르는 길’

글·사진 손재식
그물코 / 1만2천원



삶과 죽음의 거리는 과연 몇미터?

비록 정상은 밟지 못했지만 그가 남긴 발은 또 다른 에베레스트다. “산이 거기에 있기 때문.”

1924년 6월 8일, 에베레스트 8,170m의 제6캠프에서 행방불명이 된 그는 그 순간부터 에베레스트와 한 몸이 되었다. 그가 남긴 발은 누구나 알지만 그를 기억하는 사람들은 많지 않다. 정상을 밟지 못했기 때문이다.

그의 이름은 맬로리(영국, 1886~1924, Geroge Herbert Leigh Mallory). 케임브리지 출신인 그는 1921년 제1차 영국 에베레스트 원정대원이 되었고, 1922년에 이어 1924년 에베레스트 등정 중 히말라야로 스며들고 말았다.

왜, 산을 오르느냐는 물음에, “산이 거기에 있기 때문”이라 한 그의 대답은, 흔히 우리가 행해온 이런 저런 의미 부여를 불허한다. 말 그대로, 산이 여기에 있지 않으니가 거기로 갈 뿐(Because there)이었다는 말이다. 마치, “왜 사냐고 묻는 그 말에 / 대답 대신 웃는 심장...”이라 한 이태백의 시 ‘산중문답(山中問答)’의 구절이나, 김상용의 시 ‘남으로 창을 내겠소’의

미답 히말라야 40일간 등정 다큐멘터리

“왜 사냐고 / 웃지요”라는 마지막 대목에 가깝다. 뭔가 특별한 대답을 기다리는 수많은 우문에 대해 바람처럼 내뿜은 한 마디라고 봐야 할 것이다. “깨달을 이란 무엇입니까?” 하니 “세수하다 코 만지기”라고 답한 선사의 말과도 크게 다르지 않을 것이다.

<하늘로 오르는 길>은 정상을 100m 앞두고 꽃잎처럼 산화한 세 산사(세)의 이야기를 중심으로 기록한 산사인들의 삶과 꿈이 고스란히 녹아있는 히말라야탈레이사르(6,904m) 북벽 등반이다. 히말라야탈레이사르(6,904m) 북벽 등반이다. 탈레이사르를 삶의 정점으로 삼은 죽은 세 사람, 김형진(당시 25세), 최승환(28세), 신상만(32) 그리고 지은이 손재식, 윤길수, 장기현 씨가 40일간 산을 오르는 과정을 기록한 다큐멘터리이다.

1998년 8월 23일, 그들은 탈레이사르로 떠난다. 그리고 40일째, 실제로 정상 등정에 가까운 난코스인 제1 평지에 가까운 정상 100m 전에서 세 대원이 추락하고 만다. 그들은 왜, 어느 정도의 명에가 보장되는 8,000m급 거봉이 아닌, 보통 사람들에겐 이롭고 생소한 탈레이사르로 간 것일까. 이 의문 앞에서 우리는 ‘등정주의(登頂主義)’가 아닌 ‘등로주의(登路主義)’를 만난다. 얼마나 높은 봉우리에 올랐느냐가 아니라, 어떤 길을 어떤 방법으로 오르느냐에 의미를 둔 등반이 곧 그것이다.

탈레이사르를 1976년에 영국과 미국의 합동 원정대에 최초로 정상을 허락한 최고 난도의 등반 기술을 요구하는 봉우리다. 하지만 첫 등정은 가장 어려움이 적은 루트였고, 이 책이 증언하는 북벽은 아직 누구도 성공하지 못한 루트다. 바로 그것 때문에 그들은 그곳으로 갔다.

이 책의 저자인 손재식 씨는 클라이머이자 사진가이다. 그래서일까, 삶과 죽음이 교차하는 극한 상황도, 끝내는 동료의 시신을 마주하는 순간마저도 냉정하리만큼 차분한 어조를 유지한다. 일반적으로 카메라는 어느 정도의 초점거리를 필요로 한다. 너무 가까이 혹은 너무 멀리 떨어진 피사체는 담을 수 없다. ‘거리두기’가 필요한 것이다. 바로 그것으로 하여금 냉정을 잃지 않게 했을까. 그랬을지도 모르겠다. 그러나 그것만은 아닐 것이다. 잃어버린 동료의 기억하고자 함이 책을 내게 된 근본적인 목적이라면, 그들의 행위가 스스로, 그들이 추구한 삶의 의미를 말하게 하려는 의도에서였을 것이다. 그래서 이 책은 단순한 등반 기록을 넘어 삶과 죽음의 의미를 묻게 한다. 삶과 죽음의 거리는 과연 몇 미터일까?

■윤재학 / 본지 논설위원 · 동화작가

<하늘로 오르는 길>은 정상을 100m 앞두고 꽃잎처럼 산화한 세 산사(세)의 이야기를 중심으로 기록한 산사인들의 삶과 꿈이 고스란히 녹아있는 히말라야탈레이사르(6,904m) 북벽 등반이다.

“지금 이곳에서 걸림없이 살아야

고요하고 멋있는 ‘인생의 오후’”

“대체로 선 삶을 남기고 나서는 세속의 일은 모두 그만두고 한가한 시간을 갖는 것이 바람직하다.”

90년대에 출간한 <행복의 사상>을 통해 옛 선사들의 무욕(無慾), 무위(無爲)의 사상을 소개함으로써 수많은 독자를 감동시킨 나카노 고지(78, 도쿄대학 교수 정년을 15년이 나 남겨둔 50세에 ‘자주정년(自主停年)’을 선언한 특이한 이력의 소유자인 저자가 <행복한 노년의 삶>을 통해 흐르는 세월만큼 더 깊고 맑은 목소리로 ‘행복의 사상’을 전한다.

‘행복한 노년의 삶’

나카노 고지 지음 / 정미화 옮김
문예 / 9천원

“그렇게 단지 마음만을 위해서 살라”는 어느 선사의 가르침에 따라 저자는 60세부터 ‘남들이 만들어 놓은 기준이 아닌’ 자신을 위한 삶을 살아왔다. “행복이란 ‘나는 지금 살아서 여기 이렇게 있다’는 사실을 자각하는 것”이라고 말하는 저자는



행복한 노년의 삶은 재테크 따위의 물질적인 가치에 있지 않다고 말한다. 그는 이 책에서 ‘고요하고 멋있는 인생의 오후’를 즐기기 위해 ‘지금 이곳(Here and now)’에서 집착을 끊고 살라는 선(禪)의 핵심 사상을 반복해서 강조한다. 동시에 일본 선사들의 일화(逸話)와 가르침을 인용하면서 무소유의 정신을 일깨운다.

이 수필은 시종일관 잔잔한 어투로 저자의 일상 속 평상심(平常心)에 대해 소소히 이야기 해줌으로써 독자에게 여유롭고 행복하게 인생의 마무리를 준비할 수 있는 방법을 알려준다. 아내가 알아 늙는 바람에 난생 처음 살림을 하며 아내에게 고마움을 느꼈던 일, 아침 일찍 깨들과 산책하던 일, 고전을 읽으며 옛사람들과 교류하는 잔잔한 즐거움을 누렸던 일 등 사소한 에피소드들이 이루어진 그의 수필은 한결같이 우리의 긴장을 누그러뜨려주면서 웃음과 넉넉함을 선물하고 있다.

나카노 고지는 현재 가나가와문학진흥회 이사장을 맡고 있으며, 2000년 <암살자>로 예술선정(藝術選定) 문부대신상을 수상한 바 있다. 역자는 전문번역가인 장미화씨다.

김재경 기자

법보시나 불사유용으로 제작하였습니다.



절첩식 10×25cm
표지 : 고급 TC 하드커버 금박
내지 : 매직칼라 연미색 120g

표지에 사찰 이름을 금박으로 넣어 드립니다.
주문후 7-10일 정도 걸리며 택배로 보내드립니다.
계좌번호 : 국민 / 665901-01-252268
우리 / 116-07-085001
우체국 / 104216-02-138824 예금주 조재호

문의전화 : (080)662-8522

금강경사경 불사 경제가 어렵습니다.

사경은 세계적으로 자랑할만한 우리의 전통문화입니다. 사경은 기도이며 수행이고 참회이며 복을 짓는 일이며 업장을 소멸하는 길입니다. 부처님의 말씀이 담긴 경전을 독송하며 서사(書寫)하는 공덕은 이루 말할 수 없습니다. 그중에서도 금강경은 예로부터 사경경전의 제일로 꼽아왔습니다.

우리나라 모든 스님들과 불자들에게 권합니다.

사십 구제를 모시면서 사경을 하면 왕생의 요격이 됩니다. 사경한 것은 사십 구제날 고인을 위해 불살라 줍니다. 조상님이나 임신중절한 태아의 천도를 위해서 사경기도를 합니다. 천도시작하는 날 함께 불살라 영가에게 공양합니다. 자식의 입시나 남편의 승진을 위한 사경기도를 합니다. 사경을 부처님 전에 올리고 감사공양을 올립니다. 소원성취를 위해서도 사경기도를 하거나 병고퇴치를 위해서 사경기도를 합니다. 사경한 것은 불전에 올립니다. 답이나 법당을 세우거나 새롭게 부처님을 모실 때 사경불사를 합니다.

이제 부처님께 사경불사를 올려야 합니다.

TEL/(032)662-8522 FAX/(032)662-8524 양지바른곳